

뉴스 & 뉴스

법주사 승가대 '정식인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15일 제37차 교육위원회에서 법주사, 수덕사, 불국사, 직지사, 화엄사승가대학 등 가인이 승가대학 5곳 가운데 처음으로 법주사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은 총 32명의 학인과 교직자 스님 4명, 그리고 법주사 주지 해광스님 등 운영위원 11명 등으로 구성요건을 완비했다.

한편 교육원장 압도스님은 9일 법주사승가대학을 방문해 사미의제법 실시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컴퓨터 5대를 기증했다. 이은자 기자

23일 대북 불교정책 워크숍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원주)는 14일 육화관에서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까지 모금된 성금 3억5천여만원에 대해 결산심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육수수와 분우등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하기로 했다.

또 8·15대축전과 관련, 지선스님을 상임대표로 하고, 각 종단 대표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불교추진본부 구성기로 결의했다. 이와관련 이날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육화관에서 '8·15 대축전에 즈음한 현시기 통일운동의 요령 분석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제4차 불교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필선 기자

29일 양심수석방 기원법회

8·15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교계 재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실천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30여개 교계 신명단체와 운동단체가 공동으로 29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원하는 기원대법회를 병행한다. 규탄위주의 기존방식을 탈피, 양심수 석방에 대한 사부대중의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아래 마련된 것이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를 시작으로 양심수 현황발표, 석주스님(철보사 조실) 법어, 문화행사, 특별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종각역까지(예정) 촛불행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녹야원에 장애아 공부방

승가원 산하 주간보호센터인 녹야원과 상락원은 20일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각각 공부방을 개설한다.

공부방은 장애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의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바른 발달을 돕게 된다. 기초 학습능력과 사회성, 운동능력, 심번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균형있는 발달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모집인원은 각 20여명 정도. (02)3413-6063 김재경 기자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200여명이 14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조계사 문화교육관 앞에서 17일 현재까지 농성을 하고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농성노동자 경찰난입

종교편향대책위 '성소침탈' 강력 비난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저녁 7시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의 조계사 농성농업과 정에서 자행된 공권력의 조계사 난입과 봉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국민의 정부, 종교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관련 종단협 인권위원회(위원장 해공)와 새불교운동전승가회(공동회장 진관, 석담),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도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나눔의집 조계종 산하 법인추진

정관개정기로

조계종은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종단 산하 법인화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눔의 집 이사회는 1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

를 열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상임이사(조계종 사회부장)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이사진을 늘려 나눔의 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선원총람' 조사착수

조계종교육원 99년 완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선원총람>발간을 앞두고 11일 대전 세동선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

했다. 99년 가을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원총람>은 구산선문 9개 사찰과 비구(니) 선원 34곳의 연혁, 사적비, 비문, 묘연문, 주요 성보 등 현황자료를 담게 된다. 이은자 기자

성역없는 공권력

것'이라고 공언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지휘아래 움직여야 할 공권력에 통솔하고 있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대로 공권력은 명목상만 침탈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계에 대해서만큼

은 성소(聖所)라는 것을 망각하고 군화로 짓밟기 일수였고, 조계사 경내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무례함을 범해 왔다. 94년 개혁당시를 굳이 떠올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국민정부도 불교 이해와 화해, 무차별인 공권력의 성소침탈을 자행해 왔던 문민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

워보인다. 14일 또다 시 빚어진 성역없는 공권력 침탈은 정부를 스스로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현 정부는 직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교권유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교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JTS, 인도 보드 가야 성지에서 아기부처님 키운다

유치원·학교운영 지원...빈곤퇴치·의료봉사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 보드기야의 최북단 마을인 인도 비하르주 동계스와리. 불가족 친민들이 모여사는 이곳에 다시 부처님의 평등·자비사상이 연꽃을 피우고 있다.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는 지난해 10월부터 동계스와리 인근 16개 마을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최근 11개 마을 어머니회를 조직하고 10곳의 유치원 개원을 진앞에 두고 있다. 각 마을마다 공동 우물을 정화하거나 가옥·도로·배수로 보수작업, 가내수공업 진흥 등의 계몽

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마을 자치활동의 주체로서 유치원 지원, 마을은행 설립 등을 준비하는 어머니회는 5월초부터 한명당 10루피(한화 4백원)의 회비를 모아 유치원 및 학교의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마을 은행이나 단우 협동조합을 개설, 마을의 자립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유치원 건립 공사는 16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서 지난 3월 초부터 진행 중이다. 아자드비가 마을의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되었으며 가라비가, 바가히, 반갈비가

등의 마을은 10월 초에, 그밖의 마을의 공사는 12월까지 각각 완공된다. 한국JTS 이화승 국장은 "학교 건물이 없는 마을에서는 가건물이나 천막 아래서 모두 6백여명의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을 실시 중"이라면서 "주민들이 더욱 많은 교육·의료(지하카병원 운영)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유치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현지 마

을 방문해 마을개발 사업현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귀국한 법륜스님은 "JTS가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으나, 우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간의 협동심과 자립심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JTS는 인도지역 의료·교육사업을 위해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 6천 6백달러(한화 9백만원 상당)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02)5810-58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부산 종교인구조사 "못믿겠다"

통계청 자료대비 불자수 절반으로

부산시 "체계적 조사아니다" 해명

부산시는 통계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관내 종교기관 현황과 종교인 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인구 4백만명 가운데 종교인은 1백40만6천여명이다.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인자가 70만6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와 천주교인자는 각각 33만2천여명, 21만8천여명이었다. 그러나 95년 11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조사결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교인구는 2백10만여명이며, 불교신자는 1백45만여명, 개신교는 42만4천여명, 천주교는 17만9천여명이었다. 부산시와 통계청 조사를 대비해 종교인구와 각 종교인구를 비교하면 불교신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조사설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통계청이 배부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실직자 157명 '귀농살' 도전

백양사 5차 단기출가수련회...9월에 또 열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직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불교적 가르침 안에서 재기의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가 17일 총 5차에 걸친 수련회를 성료했다.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회는 경제위기속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교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참선수련, 불교문화 이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는 매회 신청자가

들려, 총 157명이 수련회를 통해 새 삶의 의지를 다졌다.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를 주도했던 금강스님과 토진스님은 "당초 7월까지만 열 예정이었지만 예상외로 반응이 좋고, 계속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실직자들을 위한 정신프로그램이 전문한 실정을 감안해 9월부터 수련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면서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회를 노동부 재취업 심성개발프로그램으로 인가받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nia.com)

14일 저녁 7시, 단아한 목탁 소리에 맞춰 스님과 불자들이 저녁예불을 드리고 있는 조계사 경내에 갑자기 둔탁한 군화 소리와 '저 X X 잡아라' 하는 외침소리가 섞여 일순간에 난장판이 됐다. 현대중기산업 2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조계사를 거점으로 농성을 위해 해탈문을 들어 온 순간 총포경찰서 소속 방범수술대 10여명의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과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까지 뛰어 들어와 소란을 부린 것이다. 때마침 그 안을 지나던 불교운동단체 종사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여기가 어딘데 들어왔다'며 항의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허겁지겁 조계사를 빠져나갔다.

당시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중에는 수배자도, 폭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던 사람도 없었다. 현 정부는 '국민정부'의 가치를 내걸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불자는 "제일기간동안 어떠한 종교적 차별이나 편향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지휘아래 움직여야 할 공권력에 통솔하고 있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대로 공권력은 명목상만 침탈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계에 대해서만큼

은 성소(聖所)라는 것을 망각하고 군화로 짓밟기 일수였고, 조계사 경내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무례함을 범해 왔다. 94년 개혁당시를 굳이 떠올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국민정부도 불교 이해와 화해, 무차별인 공권력의 성소침탈을 자행해 왔던 문민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14일 또다 시 빚어진 성역없는 공권력 침탈은 정부를 스스로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현 정부는 직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교권유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교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천만의 깨달음을... 현대 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지부장모집.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특전: 1. 법제적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장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법자격증, 스포츠 및사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및사사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짜다리교정법, 즉시효과) 5. 사자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길 3-1 (02)1234-5678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향(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닉과 멘틀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음식의 성분은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생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합니다. 대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에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힘의 흐름, 몸의 흐름, 악력작용의 세가지 특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억울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뱃속이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문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